

금호석유화학, 저평가 이유 없다!

동양증권, 합성고무 및 열병합 발전 안정돼 경영 리스크 낮춰

동양증권은 8월9일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결코 저평가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4만5000원을 유지했다.

황규원 애널리스트는 “대우건설 인수자금 부담이 기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호석유화학이 주가이익비율(PER) 3.4배, 주가순자산비율(PBR) 0.5배에서 거래되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”며 “특히, 안정적인 합성고무 및 열병합발전 이익 흐름은 경영위험을 낮추는 요인”이라고 말했다.

황규원 애널리스트는 “2006-08년 평균 영업이익이 2005년 대비 20%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했고 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이후 구체화될 역량강화가 기대된다”며 지속적인 매수 후 보유 전략을 권고했다.

2/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“매출액이 1/4분기보다 8.1% 증가한 반면, 영업이익은 28.8% 감소했다”며 “여수열병합 발전소 설비 보수에 따른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고미혜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8/09>